

칼럼



김윤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

예부터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전해 온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세월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어서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일들이 많았나 보다.

옛날에는 우선 가난으로 향시 먹을 식량이 부족할 처지에 봄이 되면 가을에 수확했던 곡식이 떨어져서 식량이 극심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봄철에 어려운 식량 부족을 많이 겪기에 춘궁기(春窮期)라는 말을 지금 60대 이상 사람들은 어린 시절 많이 들으며 자라났다.

농업의 비중이 크던 1960년대까지만해도 봄철에 먹을 보리쌀도

부족해서 썩구이나 나물국, 밀가루 수제비로 식사를 대용하는 일도 많았다. 늦은 봄, 6월쯤 되면 아직 익지도 않은 풋보리를 베어다가 죽이나 밥을 해먹기도 했다.

쌀밥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나 먹을 수 있고, 조상님 제사(祭祀) 때에 간신히 제사상(床)에 올랐다. 그래서 제사 덕에 이밥(쌀밥) 먹는다는 속담도 생겨났다. 어떤 일을 방지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뜻으로 전이(轉移)되었다.

봄철의 가난과 식량난에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재난까지 겹치면 힘 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탄식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며 견디내야 했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근면 자조 협동의 국가사회적 기풍을 진작시켰던 1960년대 새마을운동은 경제사회적으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6·25 동족상잔(相殘)의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의 마이너스 이미지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진입한 기적은 그 출발은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이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다. 5·16군사쿠데타와 3선개헌, 1972년 유신독재 등 정치적인 행태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로 비극이다.

이제 가난은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말이 되었고, 풍요 속의 빈곤

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풍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못 산다(빈곤)는 뜻이다.

빈부(貧富) 격차의 심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무너진 계층 상승의 사다리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절대적인 가난은 벗어났지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힘든 일상을 버티면서 견디어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1년 전부터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출 시에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써야 하는 마스크

를 나는 복면(覆面)이라고 부른다. 얼굴의 전부나 일부를 헝겊 등으로 싸서 가려주는 것이 복면이다.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소(牛, 丑)와 친하다. 외양간에 소를 키우며 농사철에는 소를 부려서 논이나 밭을 쟁기질로 갈아엎어서 비와 보리, 콩 등 농작물을 가꾸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돕기도 하면서 자랐다. 어린 시절, 풀밭에 소 깔(소풀)을 베어 가지고 와서 소죽을 끓이기 위하여 야궁이에 쪄 불이나 장작불을 피우기도 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마다, 소의 입에 씌우고 다니던 부리망(綱), 머구리가 생각해서 소에게 미안한 생각을 한다.

짚으로 꼬아 줄처럼 만든 작은 새끼로 그물 같이 성기에 엮어서 만들어 소를 부릴 때에 소가 곡식이나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의 입에 씌우는 물건이 머구리, 부리망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식사할 때만 벗고 늘 복면, 머구리, 부리망을 쓰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 못하는 소의 덕(德)과 희생을 생각하며 소에게 감사한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여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온난화로 기후는 우순풍조(雨順風調)하지 않다. 지구촌 곳곳에서 목살을 앓고 있다.

봄에 폭설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폭우와 태풍, 폭염과 흑한, 홍수와 지진, 해일(海溢)은 갈수록 심해져서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단단히 치르고 있다. 중국 내륙 사막지역에서 황사(黃砂)와 초미세먼지까지 날라와서 하늘과 도시가 희뿌연 날에는 마스크가 생명의 유일한 방어 장비 같은 절박감마저 든다.

2021년 3월 초봄, 꽃 피고 새우는 따뜻한 봄날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도 황사까지 희뿌연 봄날, 꽃 구경은 커녕 건강 강한 것만 큰 축복이다. 성 추행으로 물러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4·7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사건이 터져서 전 공기업과 공직자 가족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들의 마음의 하늘은 희뿌연다.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은 것은 나만의 지나친 감상인지 모르겠다.

기고



임동현 영암소방서장

평상시 화재안전, 비상구 확보부터!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와 많은 눈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2020년의 겨울이 지나고 지금은 대지가 움트며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기온으로 전국 각지의 명소에는 봄의 활력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을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불고기, 불건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

치로 그동안 한산했던 만큼 봄철 손님 맞이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의 본격적인 운영 전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사람이 안전할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거나 피난통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은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써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해당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주시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업소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이라는 더 나은 서비스라는 점을 시설 관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용객 여러분도 대규모 사업장 방문 시 잠시나마 비상구 위치를 눈여겨보는 안전 생활 TIP(TIP)을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j-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윤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